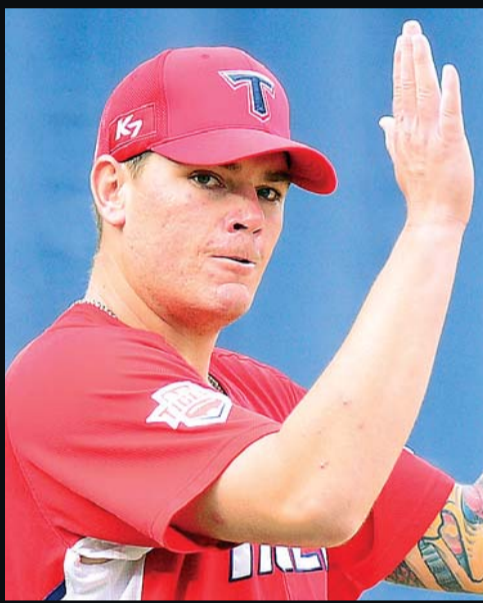


위기의 KIA... 이제 '에이스의 시간'



선수들 급격한 부진에 리그 7위 힘겨운 나날
양현중, 직구·체인지업 위력 떨어져 7월 5경기 1승
에이스 역할 하던 브룩스 허리 부상에 엔트리 말소
'양현중 성적=팀 부활' 중대 순간... '만행' 역할 커져

KIA 타이거즈 양현중의 진기가 발휘될 시간이 왔다. 양현중은 KIA는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맹활약을 해왔다. 올 시즌에는 '캡틴'이라는 직책까지 더해 더 바쁘게 시즌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결과가 좋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시작된 2020시즌, 키움과



브룩스

의 개막전 선발로 나섰다. 3회를 끝으로 양현중의 이닝이 중단됐다. 30인 4피안타 2볼넷 1탈삼진 4실점이 양현중의 시즌 첫 성적이었다. 삼성과의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 60인 2실점의 호투를 시작으로 3연승에 성공하면서 양현중의 시즌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6월 시작도 나쁘지 않았다. 롯데와 키움을 상대로 연승을 달렸다. 승리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시즌 8번째 등판이었던 6월 14일 SK전에서는 시즌 처음으로 7이닝도 소화하면서 '이닝이터'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어진 6월 21일 삼성전에서 다시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40인 동안 2개의 홈런 포함 10안타를 맞은 양현중에게 8실점(7자책점)의 패배가 남았다. 그리고 험난한 7월이 양현중을 기다리고 있었다. 양현중은 7월 5경기에서 24인을 소화하는 데 그쳤고, 홈에 들어보면 주자는 24명(23자책점)에 이르렀다. 7월 양현중의 평균자책점은 8.63, 한화전 1승이 유일한 승리였다. 특유의 직구 매서움이 떨어지고,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제구가 흔들리면서 양현중이 어렵게 이닝을 풀었다. 양현중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 브룩스가

올 시즌 '에이스' 호칭을 차지했다. 브룩스는 선발진 중 가장 기록 없이 시즌을 풀어가면서 19경기에 나와 팀에서 가장 많은 123이닝을 소화해냈다. 리그 전체로 따져도 세 번째로 많은 이닝이고, 경기수를 감안하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이닝 소화력을 과시하고 있다. 브룩스는 123이닝을 소화하면서도 평균자책점은 2.85로 묶였다. 유독 승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7승에 머물고 있지만 브룩스는 가장 계산이 서는 선발 카드로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KIA 선발진에 변수가 생겼다. 브룩스가 가벼운 허리 통증으로 24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김기훈, 차명진, 남재현 등 '임시 선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KIA 마운드에서 '만행' 양현중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최근 상승세는 반갑다. 지난 22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불펜 난조로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까다로운 상대 타선을 6.2이닝 6피안타 3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처리했다. 무실점을 기록한 건 지난 5월 22일 SK전 이후 처음이자 시즌 두 번째다. 앞선 LG-SK와의 경기에서도 한층 매서워진 구위와 더 정교해진 제구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다. 지난 시즌 양현중은 팀의 에이스이자 연패 브레이커로 마운드를 이끌었다. 덕아웃에서도 양현중은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주다. 부진을 털어낸 양현중이 마운드 안팎에서 '캡틴'의 면모를 보이며 팀의 순위싸움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인비, 올림픽 가시권

女 골프 4계단 상승한 세계 8위



박인비(사진)가 여자 골프 세계 랭킹 8위에 올라 2021년 도쿄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키웠다. 박인비는 25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12위보다 4계단이 오른 8위에 자리했다. 이로써 박인비는 한국 선수 가운데 1위 고진영, 3위 박성연, 6위 김세영에 이어 네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지난주까지 박인비는 9위였던 김효주와 11위 이정은(24)에 이어 한국 선수 중에서 6번째였다. 2021년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 골프 경기에는 2021년 6월 말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출전 자격이 정해진다. 여자부의 경우 같은 나라 선수가 세계 랭킹 15위 이내에 한해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박인비는 이번 주 순위 상승으로 도쿄 올림픽 출전 카드 라인에 진입한 셈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인비가 세계 랭킹 10위 내에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10개월 만이다. 박인비는 24일 끝난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에서 단독 4위를 차지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김효주가 10위, 이정은 11위, 유소연 13위 등으로 올림픽 출전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AIG 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조피아 포포프(독일)는 304위에서 24위로 무려 280계단 상승했다. 독일 선수 최초로 여자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포포프는 독일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르며 올림픽 출전 전망을 밝게 했다. /연합뉴스

다시 동반 출격... 벌써 두근두근

28일 류현진 보스턴·김광현 피츠버그전 선발...한국 첫 ML 동반승 기대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과 'KK'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다시 한번 같은 날 등판해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 최초 동반 선발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28일 오전 7시37분(한국시간)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 것이 확정됐다. 김광현은 같은 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더블헤더 중 한 경기에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류현진, 보스턴 상대로 3승 도전...위기의 토론도 구하라> 류현진의 어깨가 무겁다. 현재 토론토는 맷 슈메이커가 어깨 통증, 트랜트 손튼과 네이트 피어슨이 팔꿈치 통증으로 나란히 전력에서 빠지는 등 선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토론토는 25일 탬파베이 레이스전에 테너 로크를 투입해 급한 불을 껐지만, 27일 경기와 29일 경기가 문제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토론토는 에이스 류현진이 등판하는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다행히 류현진의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류현진은 23일 탬파베이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는 등 8월 4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1.23을 기록했다. 최근 2경기에선 11이닝 동안 볼넷을 단 한 개도 내주지 않는 등 제구력도 회복한 모습이다. 평균자

책점 3.19를 기록 중으로 2점대 평균자책점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탈삼진 2개를 보태면 통산 700탈삼진 고지를 정복한다. <2연승 도전하는 김광현, 본격적인 시험대 올랐다> 김광현의 선발 등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25일 배포한 게임 노트에서 26일과 27일에 열리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전 선발 투수를 애덤 웨인라이트, 다코타 허드슨으로 예고했다. 김광현은 허드슨 다음 경기에 등판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이 없는 한 28일 피츠버그와 더블헤더 중 한 경기에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올 시즌 마무리 투수로 시즌을 시작한 김광현은 지난달 25일 피츠버그전서 1이닝을 던진 뒤 18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첫 선발 등판해 3.2이닝을 던졌다. 그리고 23일 신시내티 레드즈전에서 6이닝을 책임졌다. 김광현은 지난달 25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피츠버그를 다시 만난다. 그는 피츠버그와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세이브를 올렸지만 1이닝 2피안타 2실점(1자책점)으로 고전했다. 올 시즌 좌완투수를 상대로 타율 0.444를 기록 중인 포수 스타링이 특히 경계대상이다. 한편 김광현은 올 시즌 1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69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류현진



김광현

올 U18 챔피언십은 '동해안 Derby'

포항 vs 울산 오늘 결승전... '5경기 8골' 금호고 엄지성, 득점왕 예약

2020 K리그 U18 챔피언십 결승전이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Derby'로 펼쳐진다. 올해로 6화제를 맞는 챔피언십 결승전이 26일 오후 7시 포항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지난 14일 막을 연 챔피언십은 K리그 산하 고등부 클럽(U18)이 참가하는 하계 토너먼트 대회로 고등부 22개 팀이 총 6개조로 나눠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통해 최후의 두 팀을 가렸다.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는 포항제철고와 울산 현대고의 대결로 전개된다. A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포항 제철고는 2017년 우승 이후 3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C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울산 현대고는 준결승전에서 수원 대안고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며 결승에 진출했다. 울산 현대고도

2018년 우승트로피를 차지한 역대 챔피언이다. '디펜딩 챔피언' 광주 금호고의 도전은 포항제철고에 막혔다. D조에서 경쟁한 금호고는 서울 이랜드(서울)와의 대회 첫 경기에서 6-0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이후 충남기계공고(대전)에 1-3으로 졌지만 제주 U18(제주)과의 경기를 5-0 승리로 장식하면서 조 1위로 챔피언십 16강에 올랐다. 개성고(부산)와의 16강전에서 6-2로 기분 좋은 질주를 이어갔지만, 포항 제철고의 봉쇄에 막히면서 대회 2연패 도전이 무산됐다. 공격의 핵심 엄지성이 진기록과 함께 사실상 득점왕을 점찍어두면서 금호고의 아쉬움을 달래줬다.

엄지성은 서울이랜드와의 개막전에서 세 골을 몰아넣으면서 2년 연속 대회 개막전 헤트트릭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엄지성은 지난해 FC안양 U18팀인 안양공고와의 개막전에서도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금호고 우승 행보의 서막을 열었다. 첫 경기부터 화력을 발휘한 엄지성은 개성고와의 16강에서도 대회 두 번째 헤트트릭을 장식하는 등 대회 5경기에서 8골을 넣어 득점 1위에 올라있다. 득점부분 순위권에서 유일하게 포항제철고 흥운상이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4골 차로 뒤져있는 만큼 엄지성의 대회 득점왕 수상이 유력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